

시론



정성문
더재움 대표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호는 어느 지역에서나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 명이 다시 찾아오는지 묻는 지역은 드물다. 첫 방문을 유도하는 것은 마케팅이지만 재방문을 이끌어내는 것은 경험이다. 축제 기간에 반짝 봄비다 이내 한산해지는 관광지와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같은 얼굴이 돌아오는 지역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한 번 다녀간 사람이 다시 오고, 올 때마다 새로운 동행까지 이끌어내는 지역에는 공통점이 있다. 오직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찾는 지역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세밀하게 설계된 구조적 산물이다.

동화 ‘겨울 나라의 엘리스’에는 아무리 달려도 풍경이 바뀌지 않는 제자리 걸음의 나라가 나온다. 붉은 여왕은 엘리스에게 “제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달려야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배 이상 빨리 달려야 한다”고 말한다. 진화생물학은 이를 ‘붉은 여왕의 법칙’이라 부른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경쟁에서는 누구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최초·최고·최대’라는 타이틀에 집착하는 지역 관광의 현실이 이와 같다. 더 높은 전망대와 더 긴 출렁다리를 경쟁적으로 세울수록 고유의 매력은 사라지고 무의미한 소

관광객이 다시 찾는 지역을 만드는 방법

모전만 남게 된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주를 시작하는 것이다. 장소 브랜딩은 그 출발선을 지역 고유의 유전자에서 찾는다. 특정 장소의 역사와 경관, 그리고 사람을 매개로 형성된 대체 불가능한 정체성만이 확고화된 경쟁을 탈피하여 독자적인 장소성을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의 반월도와 박지도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 130여 명의 소외된 섬이었다. 그러나 마을 지붕과 다리, 골목길을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주민 100여 명이 직접 고유의 콘텐츠를 가꾸어 나가자 섬의 운명이 바뀌었다. 2021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에 이 섬을 선정했다. 현재 퍼플섬으로 불리우는 이곳에는 매년 40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스위스 체르마트는 화석연료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면서까지 ‘마터호른과 알파니즘’이라는 독자적 정체성을 사수하여 세계적인 산악 성지로 자리 잡았고, 일본 나 오시마는 산업폐기물 매립지라는 오명을 예술로 극복하며 글로벌 미술 애호가들을 유인하고 있다. 세 지역의 공통점은 ‘유일한 경험’으로 사람을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여행 수요도 ‘나만의 경험’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부킹닷컴’이 2025년 국내 예약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6년 주목받는 여행지 10곳’에는 부안과 태안, 삼척, 부여 등의 중소 도시가 이름을 올렸다. 예약 상위 1천 개 지역 가운데 한 해 전보다 예약이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곳들이다. 남들이 다 아는 명소가 아니라 나만의 장소, 그곳이 아니면 안 되는 경험을 찾는 흐름이 뚜렷하다. 이 변화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여행의 목적이 관광에서

경험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신호다.

물론 유일함 역시 복제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신안 퍼플섬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무작정 마을에 색바랜 칠하는 지역들이 곳곳에 생겨났다. ‘벤치마킹’이라는 명분 아래 손쉽게 베껴려는 오랜 관행이다. 하지만 색은 흉내 낼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주민의 참여와 서사, 축적된 시간마저 복제할 수는 없다. 겉모습만 모방한 곳에 첫 방문은 있어도 두 번째 방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지역 관광의 핵심 과제는 지역 스스로 ‘자기만의 경주’를 설계하는 일이다. 첫째, 지역 고유의 자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경관과 역사, 산업과 사람까지 그 지역에만 있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재해석하는 작업이 모든 기획에 앞서야 한다. 둘째, 고유성 심사의 도입이다.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계획이 타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자문하는 것이다. 만약 대체 가능하다면 지역의 자원과 사람, 이야기에 깊이 뿌리내릴 때까지 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원칙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지표의 전환이다. 누적 방문객 수라는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 재방문의 의향과 체류시간, 추천 의향처럼 경험의 깊이를 보는 질적 지표가 정책 평가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숫자가 바뀌면 행정의 질문도 달라진다.

지역 관광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왔느냐가 아니라 방문객이 다시 올 이유를 품고 돌아갔느냐에 달려 있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다움을 길게 쌓아가는 곳에 재방문은 이어진다. 지역이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이곳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난장



김영순

광주특별시도구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공연장에는 문이 있다. 표를 끊고 그 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음악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거리의 음악에는 문이 없다.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라도 관객이 되고, 박수를 치고 함께 노래할 수 있다. 버스킹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다.

광주 도심에서 그런 열린 무대가 열린다. 7~11일까지 총장축제 기간 동안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총장로 일원에서 펼쳐질 광주버스킹월드컵이 그 무대다.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다. 올핸 전 세계 56개국 535팀, 1천549명이 신청해 예선을 거친 뒤 축제기간 중엔 8장으로 치러진다. 8일 외국인버스킹, 9일 스트릿댄스, 10일 버스킹월드컵 본선 8강, 11일 결선과 시상식·초청공연으로 이어진다. 특히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포장마차’, ‘취하고 싶다’ 등으로 사랑받은 감성 발라드 황인육과 제4회 광주버스킹월드컵 수상팀인 록밴드 크랙샷이 5·18민주광장 무대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올해는 공연과 함께 ‘음악과 미식이 어우러지는 피크닉형 음악축제’로의 변화도 시도한다. 5

버스킹월드컵, 거리서 세계음악 듣다

·18민주광장에는 푸드트럭, ACC하늘마당에는 지역 베이커리와 카페 등이 참여하는 맛집팝업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먹거리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름 그대로 세계의 버스커들이 광주로 온다. 서로 사용하는 언어도, 살아온 환경도, 음악의 색깔도 다르다. 하지만 거리 한복판에서서 악기를 들고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언어의 장벽은 낮아진다. 생전 처음 듣는 노래 인데도 어깨가 들썩이고, 가사를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마음이 움직인다. 음악이 가진 놀라운 힘이다. 버스킹의 매력이 ‘우연한 만남’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공연장을 찾아가지 않았는데도 좋은 음악을 만날 수 있다. 약속 장소로 가던 길에 어느 뮤지션의 노래에 발걸음을 멈출 수도 있고, 잠깐 듣다가 어느새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서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난 음악 한 곡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도 한다.

좋은 도시는 건물만 번듯한 도시가 아니다. 걷다가 뜻밖의 풍경을 만나고, 광장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박수를 칠 수 있는 도시다. 다음 장면을 예측할 수 없는 도시, 그래서 한번 더 걸어보고 싶은 도시가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런 점에서 버스킹월드컵은 단순한 음악 경연 대회를 넘어선다. 광주의 거리를 하나의 커다란 공연장으로 만들고 시민의 일상 속으로 예술을 끌어들이는 데.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경계도 허문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과 거리에서 듣는 사람이 눈을 맞추고 호흡하면서 하나의 공연을 함께 만들어간다.

그 무대가 5·18민주광장이라는 사실도 의미 있다. 수많은 시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장에 이제 세계의 젊은 음악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음악을 자유롭게 부른다. 시대와 방식은 다르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광장을 채운다는 점에서는 어딘가 맞닿아 있다. 올해 버스킹월드컵은 총장축제와 같은 기간 열린다. 한쪽에서는 우리 기억 속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또 다른 거리에서는 세계의 젊은 뮤지션들이 오늘의 음악을 들려준다. 익숙함과 낯설이한 거리에서 만난다.

축제기간만큼은 목적지를 향해 너무 빨리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오면 잠시 걸음을 늦추어 보자. 처음 보는 뮤지션의 노래라도 한 곡쯤 끝까지 들어보자. 마음에 든다면 마음껏 박수를 보내도 좋다. 그 작은 멈춤들이 모여 광주의 거리를 거대한 공연장으로 만든다.

10월의 광주에서는 굳이 음악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올해로 스물세번째가 되는 총장축제의 테마도 추억의 노래고 이 기간 동안 함께 열릴 버스킹월드컵은 대놓고 음악축제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음악이 먼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될지도 모른다. 세계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총장로의 어느 모퉁이, 5.18 광장에서 한 뮤지션의 노래 속에 세계가 와 있을 것이다. 그 세레 속에서 음악을 가지고 함께 호흡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두들 버스킹 월드컵에 나오시라. 멋진 음악이 기다리고 있을테니.

독자투고

최근 각종 범죄가 다양화되면서 범행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 또한 천차만별인데 불법 무기는 그야말로 방치돼 있을 때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무기류는 한 번 범죄에 사용되면 피해가 매우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때마침 경찰에서는 불법 무기류로 인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있다. 신고 대상은 정식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

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이다. 물론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등 소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현행법에는 불법 무기류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불법 무기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식용, 기념품이 될수 없는 물건인 만큼 절대 보관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미래의 위협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를 근절에 앞장서자.

(김덕형 장성경찰서 상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説

학원 교습비 인상안, 학부모들 목소리 반영해야

광주지역 학원 교습비가 인상될 조짐을 보이며 학부모가게 부담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경우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게 살림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원 교습비 조정안을 의결해 교육장 고시를 앞두고 있다. 전체 평균 인상률을 1.7%로 의결(교육청 중재안)했지만, 입사·보습학원의 경우 초등 8%, 중등 11.4%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 폭이 큰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의 체감 부담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학교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서부교육지원청이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점이다. 서부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2천33명 참여한 결과, 학부모의 86%가

사교육비로 인해 가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지역 학원 교습비가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도 79.8%에 달했다.

여기에는 교습비 인상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싸늘했다. 수용 가능한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 66.4%가 ‘동결’을, 교습비 심의 시 최우선 고려 요소로 ‘학부모 가게 실질소득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60.7%)를 꼽아 추가적인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인상안이 2024년 11월 평균 6.6% 인상 이후 불과 2년 만에 다시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물가 속에 가게 부담을 짊어진 학부모들의 현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직접 실시한 설문에서 다수 학부모가 교습비 동결과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면 그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경제 여건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 사교육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길 기대한다.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주목 받는 이유있다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수송정도에 전국 두번째로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는 지역 밀착형 민·관 합동 서민금융모델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과 지역 민간금융을 연결해 주는 창구로 지난 7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됐다.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주목 받는 것은 무엇보다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라는 점이다.

실제 전남광주의 자영업자는 지난 8월 기준 약 4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4%에 달한다. 평균 수준인 20%보다 높은 수치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수요에 맞는 금융·고용·복지 등 서비스가 적시에 안내될 필요한 시점에서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는 매우 환영한다.

여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은행, 미소금융법인 등이 입주해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상담까지 연계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중

합적인 지원책을 안내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지역 금융기관인 광주은행 참여는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는 지역 특화 전용 대출·적금 상품인 ‘전남광주 희망사다리’ 출시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우대금리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과 지역 금융기관의 금융 역량이 결합된다면 지역민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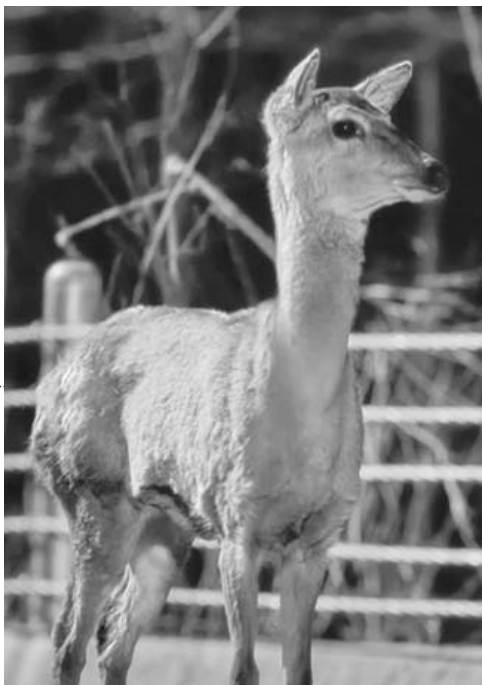
광주은행이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선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지역과 함께하는 서민금융의 새로운 모델이 전남광주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길 바란다. 다만 이번 센터 개소가 보여주거식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의 재기와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다카시 광장

뿔 없는 생존법

정순영



세상을 사는 것은 뿔이 아니었다

숲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귀를 세우고 다리에 힘을 모으는 일이었다

※ 시작노트

가진 것 없이 착한 것들은 언제나 불안하다. 날카로운 뿔 하나 없고, 물고 뜯을 수 있는 송곳니마저 동근 약한 것들의 무기는 소리를 듣는 것.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귀를 세우고 다리에 힘을 모아 죽어라 달리는 것이 유일한 생존방식이다. 뒤돌아보면 나의 삶은 뿔 없는 고라니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